

상담분야의 근거이론 연구 동향: 국내 및 북미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 (2000-2018)*

양 홍 식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석사

김 현 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18년에 국내 및 북미 학술지에 게재된 상담분야 근거이론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0-2018년 국내 및 북미 상담분야 학술지(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학연구,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C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CP, The Counseling Psychologist: TCP)에 게재된 총 13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국내 및 북미 모두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술지 별로는 국내는 상담학연구 59편(74%), 북미는 JCP가 23편(42.6%)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게재되었다. 둘째, 주요 연구주제는 국내 및 북미에서 성격특성 및 적응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대상은 국내 및 북미 모두 상담자가 가장 많았으며, 심층면접을 주로 사용하였다. 넷째, 자료 분석방식의 경우 국내는 주로 Strauss & Corbin의 접근방식을 사용하였고, 북미는 보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론도출의 경우 국내는 주로 패러다임모형을 제시하였고, 북미에서는 생성이론을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상담, 근거이론, 동향분석, 국내외 연구동향

* 본 연구는 양홍식(2017)의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현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6(서초동) 501호
Tel : 02-584-6851, E-mail : hyunjooyangkim@kcgu.ac.kr

최근 상담학 분야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이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는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질적연구는 측량화, 수량화를 통해 제시하기 어려운 개별적인 현상과 경험의 내용에 대하여 풍부한 이해를 제공한다(Strauss & Corbin, 1998). 또한 질적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해석적 접근이 이루어지며, 현상에 대한 내용 및 의미, 전후 맥락을 포함하는 과정 등 개인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관심영역으로 한다(박승민 외, 2012). 반면 양적연구는 ‘과학자-실무자 모델 (scientist-practitioner model)’을 지향하며 객관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사회현상과 대상을 이해하고 분석·검증하고자 한다(Belar & Perry, 1992). 그동안 국내 상담 관련 연구는 주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00년도 이후 점차 질적연구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료한 코딩절차, 개념적 포화, 자료의 삼각화(triangulation) 등 자료수집 및 분석을 포함한 연구과정 전반에서 충실도(fidelity)를 확보함으로써 질적연구의 고유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질적연구는 인간의 경험, 사고, 감정, 욕구 등 다양한 내면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상담학이 초점을 두고 있는 개인의 내적 경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국내 상담학 분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질적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을

기점으로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는데(권경인, 양정연, 2013; 김봉환 등, 2012; 박승민, 2012), 양적연구와 비교하면 전체 상담분야 연구의 10%-12.2% 비율로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이에 상담분야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 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권경인, 양정연, 2013; 김봉환 등, 2012; 박승민 등, 2012).

북미의 경우, 1960년대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이 대학원 상담심리학 전공에 강의로 채택되면서 질적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Wertz, 2005). 이후 현상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질적연구방법이 소개되면서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미국 상담심리학회지(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CP)에서는 2005년 질적연구 특집호를 기획하여 근거이론(Fassinger, 2005), 합의적 질적분석(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Hill et al, 2005), 현상학(Wertz, 2005), 내러티브(Hoshmand, 2005) 등 질적연구방법을 소개하였다. 이후 질적연구와 혼합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Hoyt와 Bhati(2007)의 연구와 CQR 동향을 분석한 연구(Chui, Jackson, Liu, & Hill, 2012)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상담학 분야에서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질적연구방법론이 다양화, 체계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국내 상담분야에서 진행된 질적연구 81편에서 사용된 질적연구방법을 살펴보면,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40편(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CQR(18편,

22%), 현상학적 연구(12편, 15%), 사례연구(3편, 4%), 내러티브 탐구(2편, 2%), 생애사 연구(1편, 1%), 문화기술지(1편, 1%) 연구가 이루어졌다(박승민, 2012). 이처럼 질적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질적연구방법 별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기술방식의 충실도 등을 포함한 동향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권경인, 양정연, 2013; 박승민, 2012).

국내에서 진행된 상담분야의 질적연구 동향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양적, 질적연구를 포함한 동향분석 연구(김계원 등, 2011; 박경애, 백지은, 2017; 조남정 등, 2010)와 질적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권경인, 양정연, 2013; 김봉환 등, 2012; 김지연, 2018; 박승민, 2012; 이현진, 김명찬, 2018), 특정 영역의 질적연구 동향을 검토한 연구(김영신, 박지은, 2011; 김은경, 김현주, 2017; 손은정, 2010)가 있다. 이 중 김봉환 등(2012)의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상담분야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학연구), 석·박사 학위논문, 해외학술지(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이하 JCP)에 게재된 173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질적연구 동향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질적연구 39편 가운데 CQR 18편(46.2%), 근거이론 8편(20.5%)으로 나타났으며, 상담학연구의 경우 질적연구 63편 가운데 근거이론 23편(36.5%), 현상학 13편(20.6%), CQR 11편(7.5%)으로 나타났다. JCP의 경우에는 CQR 14편(29.8%), 근거이론 13편(27.7%)으로 나타났으며 현상학,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내러티브 등 다양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국내외 상담분야 질적연구에서 근거이론 연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상담분야의 국내학술지(상담학연구와 상담 및 심리치료)와 JCP에 게재된 질적연구 동향분석연구(이현진, 김명찬, 2018)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게재된 상담학 연구 121편, 상담 및 심리치료 33편, JCP 27편, 총 181편 가운데 현상학을 적용한 연구는 52편(28.7%)이었고, 근거이론 49편(27.1%), CQR 37편(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용된 연구방법은 상담학연구의 경우 현상학 43편(35.5%)이었고, 상담 및 심리치료와 JCP는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각각 12편(36.4%), 9편(33.3%)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 근거이론이 국내외 상담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 상담학 분야에서 개별 질적연구 방법론에 대한 동향분석 연구는 CQR 연구동향(지승희, 오혜영, 2013)이 이루어졌다. 연구에서는 2001년에서 2010년까지 국내 상담분야 주요 학술지의 CQR 연구 총 28편을 분석하여 CQR 연구방법이 국내에서 '변형된 CQR(CQR-Modified)'로 발전하는 모습을 제시하였다(지승희, 오혜영, 2013).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국내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연구에 초점을 맞춘 국내·북미 동향 비교를 통해 향후 상담학 연구에서 근거이론 적용의 유용성을 확대해 나아가기 위한 학문적 탐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북미의 질적연구 동향분석으로는 JCP에 게재된 질적연구 39편과 혼합연구 11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Hoyt & Bhati, 2007)와 CQR 99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Chui et al, 2012)가 있다. Hoyt와 Bhati(2007)는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15년이라는 분석대상 기간을 전기(1989-1996)와 후기

(1997-2003)로 나누어 시간에 따른 차이 유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질적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감수자에게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이 44%에서 81%로 증가하였고, 개인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정팀을 구성하는 비중이 17%에서 66%로 높아졌다(Hoyt & Bhati, 2007). 이는 질적연구가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반영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1967년에 Strauss와 Glaser가 죽음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개발한 연구방법이다. ‘근거이론의 발견(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이 1967년 출판되어 간호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사회과학분야에서 주된 질적연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박승민 등, 2012; Birks & Mills, 2015). 근거이론이란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가 부족한 특정 현상 및 연구대상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grounded)’ 개념을 발견하고 하나의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하는 연구방법을 말한다(Creswell, 2012). 근거이론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상담분야에서 질적연구방법론 중 주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다(권경인, 양정연, 2013; 김봉환 등, 2012; 박승민, 2012).

질적연구 가운데 근거이론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근거이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Schreiber & Stern, 2001), 근거이론이 실질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거이론의 목적이 현장에서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연구 단계, 절차, 분석방

법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Benoliel, 1996). 또한, 근거이론을 개발한 Glaser와 Strauss가 1990년 이후 사실상 이론적 논쟁으로 인해 Glaser의 실증주의, Strauss와 Corbin의 절충주의로 나뉘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김인숙, 2011). 북미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쟁으로 인해 2010년 이후 후대 근거이론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절차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회복지학, 행정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계열에서 새로운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은정, 2017). 대표적으로 Charmaz의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이동성, 김영천, 2012; Charmaz, 2006)과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김진숙, 이근무, 이혁구, 2011)이 있는데, Charmaz는 1세대 근거이론가(Glaser, Strauss)와 입장을 달리하는 가운데 이론은 연구자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 가운데 생성된다고 강조한다(김은정, 2017). 또한 이론은 연구하는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Charmaz(2006)의 구성주의는 해석학적 관점을 취하며 Charmaz와 Rennie의 접근은 해석학적 구성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이처럼 근거이론은 이론적 논의와 다양한 철학적 배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론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최귀순, 2005), 상담분야에서 유용한 질적연구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담은 인간의 심리, 내적 경험과 의미에 대한 이해, 개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실천적 조력개입활동이며, 상담학은 다양한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상담과정과 관련변인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Hill, 2009). 상담에서 개인은 독특한 고유성을 갖는 존재이며, 개인의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상

담과정의 충실도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유용한 상담이론 구성의 토대가 된다(박승민 등,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을 탐색하고 행동의 변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근거이론 방법은(Strauss & Corbin, 1998) 상담학 분야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외 상담분야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적용되는 질적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권경인, 양정연, 2013; 박승민, 2012; 이현진, 김명찬, 2018). 상담학 분야에서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보다 세부적으로 개별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동향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Hoyt & Bhati, 2007). 선행 동향연구에서도(손은정, 2010; 김은정, 2017) 개별 질적연구 방법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접근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근거이론연구 동향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상담분야에서 근거이론 연구가 활성화되고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과정이 강조되고 있으나(박승민, 2012) 상담분야의 근거이론 적용 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거이론이 국내 상담학 분야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근거이론을 적용한 상담학 연구 활성화에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의 근거이론 연구동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내 상담학 연구의 학문적 지평을 확대해 나아가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2018년까지 국내 및 북미 상담분야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13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근거이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및 북미 상담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근거이론 연구의 연구주제는 어떠한가? 둘째, 국내 및 북미 상담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근거이론 연구의 연구대상은 어떠한가? 셋째, 국내 및 북미 상담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근거이론 연구의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상담분야의 근거이론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찰적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상담분야의 근거이론 연구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분석대상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상담분야 국내 학술지(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79편과 북미 학술지(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이하 JC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이하 JCP, The Counseling Psychologist: 이하 TCP)에 게재된 논문 54편을 포함한 총 133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논문 선정을 위해 국내논문의 경우 한국학술정보논문검색서비스(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및 누리미디어(DBPIA), 학지사 뉴논문에서 ‘질적연구’, ‘상담’, ‘근거이론’을 주요 주제어(keyword)로 검색된 연구물의 초록과 본문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상담학 분야에서 상담원로들이 국내 상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 제시한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김현주, 박재우, 심혜원, 주영아, 한영주, 2016)의 학회지이며, 한국연구재단 등

표 1. 국내지 분석 논문 목록

번호	발행연도	제1저자	학술지	제목(일부 생략)
1	2010	강유미	상담학연구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2	2015	고문정	상담학연구	대학생의 비구조화 집단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3	2016	고문정	상담학연구	상담자의 공감나누기 체험에 대한 질적연구
4	2011	고유선	상담학연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정체감 발달과정분석 아시아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5	2017	고홍월	상담학연구	조기 진로 목표 결정 대학생의 진로 재탐색-재결정 과정 분석
6	2014	공윤정	상담학연구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의 진로적응과정
7	2007	구승례	상담학연구	회복중인 알코올의존 부부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분노에 대한 연구
8	2007	권경인	상담학연구	한국 집단상담 대가의 특성 분석
9	2010	권경인	상담학연구	집단상담 숙련전문가의 발달 특성 분석
10	2015	권경인	상담학연구	회피에착형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관계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11	2011	김경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감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12	2012	김명애	상담학연구	상담을 경험한 아내의 대상관계에 근거한 부부갈등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13	2014	김세진	상담학연구	중학생의 절도행동 극복 경험
14	2014	김수임	상담학연구	인지도식에 기반한 기업 팀장의 리더십 유연성 작용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15	2009	김요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근거이론을 적용한 이혼소송과정 분석
16	2014	김윤희	상담학연구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장애수용 과정
17	2016	김정연	상담학연구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자들의 교육분석 경험에 대한 변화과정
18	2018	김중우	상담학연구	학교상담현장에서 인식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실제 근거이론 접근을 중심으로
19	2015	김지연(a)	상담학연구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연구
20	2015	김지연(b)	상담학연구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 유형 탐색
21	2014	김진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전공과 희망직업 불일치 대학생의 진로스토리에 나타난 진로결정 경험
22	2008	김현주	상담학연구	미국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23	2011	김효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청년구직자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사례분석
24	2014	남주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미혼여성에서 기혼여성으로의 이행에서 심리적 변화과정
25	2016	문은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초년생이 직업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26	2015	박경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이성교제 갈등으로 상담을 경험한 대학생의 심리내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27	2017	박경은(a)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28	2017	박경은(b)	상담학연구	결혼전력기 남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경험

표 1. 국내지 분석 논문 목록

(계속 1)

번호	발행연도	제1저자	학술지	제목(일부 생략)
29	2018	박경은	상담학연구	후기 청소년기 및 성인초기 우울증으로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을 경험한 여성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30	2005	박승민	상담학연구	온라인게임 과다사용 청소년의 게임행동 조절과정과 개입요인
31	2011	박연수	상담학연구	개인주의 문화성향 대학생 내담자의 자기개방 과정 연구
32	2016	박철욱	상담학연구	복합외상경험자의 자기의 회복과정
33	2005	박태영	상담학연구	근거이론을 활용한 폭식장애 여대생의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
34	2009	박한샘	상담학연구	청소년동반자 활동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35	2006	방기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심리사의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36	2004	백은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37	2015	변복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
38	2015	변시영	상담학연구	기업상담 초심자와 숙련자가 인식한 역할 및 역량에 대한 질적 연구
39	2016	서선아	상담학연구	청소년 사이버상담자의 심리적 적응과정 분석
40	2015	서영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따돌림 외상 경험 및 극복 과정 연구
41	2016	서영석	상담학연구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의 극복 과정 유형
42	2011	안영숙	상담학연구	고등학생들의 학교중도탈락 후 재입학 과정 연구
43	2017	안은주	상담학연구	상담자의 대리외상후 성장 과정
44	2009	오봉진	상담학연구	재수생의 생활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45	2016	오인수(a)	상담학연구	학교폭력의 맥락적 이해에 기초한 효과적인 상담전략
46	2016	오인수(b)	상담학연구	숙련상담자의 좌절경험 및 극복과정의 구조 분석
47	2009	오현수	상담학연구	상담일반 상담전문가 발달과정에서의 좌절극복경험 분석
48	2012	오현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내담자의 상담요청 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49	2010	유근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대상관계의 변화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50	2018	유우경	상담학연구	진로 구성 상담에 참여한 성인 내담자의 변화 과정
51	2011	윤혜정	상담학연구	휴대전화 중독 청소년들의 특성 및 중독과정 촉진요인
52	2017	이남주	상담학연구	국내거주 고려인 부부들의 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53	2015	이명윤	상담학연구	알코올중독자의 장기간 단주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54	2015	이문희	상담학연구	부정적 양육의 대물림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55	2013	이영미	상담학연구	모가 지각한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극복경험
56	2016	이윤희	상담학연구	가족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애도과정 연구
57	2018	이은주	상담학연구	청소년 거주형 치료프로그램의 치료적 요인 및 변화 결과 분석

표 1. 국내지 분석 논문 목록

(계속 2)

번호	발행연도	제1저자	학술지	제목(일부 생략)
58	2011	이은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59	2015	이은진	상담학연구	초심상담자의 자기문제 이해 및 극복과정
60	2018	이혜은	상담학연구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 - 우연한 관계 경험을 중심으로
61	2013	임선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외상적 관계상실로부터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62	2007	임은미	상담학연구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조절과정 분석
63	2011	임은미	상담학연구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64	2005	장창민	상담학연구	마약류 사용 재소자의 관계구조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
65	2012	전정운	상담학연구	초심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과정 연구
66	2017	정옥신	상담학연구	중학생의 또래관계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역동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67	2014	조윤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심리치료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부정적인 경험의 변화 과정
68	2013	조현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화병 환자의 자애명상 치료적 경험과정에 대한 연구
69	2015	채후남	상담학연구	한국 중년여성의 혼외관계 경험과정 연구
70	2014	최은우	상담학연구	미술창작에서 야기된 퇴행의 자기치유적 특성
71	2004	최지영	상담학연구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불안과 가족경계에 관한 목회상담 연구
72	2009	최지영	상담학연구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73	2007	하정	상담학연구	학업우수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74	2008	하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 결정 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75	2016	하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전문가의 역전이 관리 과정
76	2012	한영주	상담학연구	낮은 성과를 보인 상담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77	2008	한정애	상담학연구	결혼 이후 여성의 문화적응 과정 분석
78	2009	홍지영	상담학연구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로서의 경험
79	2009	황채운	상담학연구	상담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재지(KCI)로 학술지명에 ‘상담’이 포함되고 선
행연구(지승희, 오혜영, 2013; 이현진, 김명찬,
2018)에서 상담학 분야 분석대상으로 제시한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학연구를 분석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또한, 주요 주제어 검색과정
에서 누락되는 논문이 없도록 검색 범위를 2개

학술지로 제한하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
간된 논문들의 제목과 주제어, 초록을 전수조
사 하여, 연구방법론으로 근거이론을 채택한
논문을 분류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북미
논문의 경우 PsycARTICLES와 Wiley Online
Library 에서 ‘grounded theory’, ‘counseling’,

표 2. 북미지 분석 논문 목록

번호	발행연도	제1저자	학술지	제목(일부 생략)
1	2017	Arczynski	JCP	The complexities of power in feminist multicultural psychotherapy supervision
2	2009	Arm	JCP	Negotiating connection to GLBT experience: Family members' experience of anti-GLBT movements and policies
3	2009	Bang	TCP	Korean Supervisors' Experiences in Clinical Supervision
4	2004	Beckstead	TCP	Mormon Clients' Experiences of Conversion Therapy: The Need for a New Treatment Approach
5	2016	Bo Wu	TCP	Counselors' Current Counseling Practice: A Qualitative Investigation in China
6	2010	Budge	JCP	The work experiences of transgender individuals: Negotiating the transi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es
7	2013	Budge	TCP	Transgender Emotional and Coping Processes: Facilitative and Avoidant Coping Throughout Gender Transitioning
8	2015	Budge	TCP	Trans Men's Positive Emotions: The Interaction of Gender Identity and Emotion Labels
9	2017	Budge	JCP	Trans individuals' facilitative coping: An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processes
10	2013	Burnes	TCP	An Investigation of Process Variables in Feminist Group Clinical Supervision
11	2014	Capodilupo	JCP	Gender and Race Matter: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Intersections in black women's body image
12	2015	Chan	JCP	Mentoring Ethnic Minority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Students
13	2010	Chassman	JCD	An Exploration of Counselor Experiences of Adolescents With Sexual Behavior Problems
14	2014	Chronister	TCP	The Influence of Dating Violence on Adolescent Girls' Educational Experiences
15	2018	Cohen	JCP	Being in-between: A model of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for emerging adult immigrants
16	2009	Daly	JCP	Experienced therapists' approach to psychotherapy for adults with attachment avoidance or attachment anxiety
17	2015	Elder	TCP	Sexual Self-Schemas of Bisexual Men: A Qualitative Investigation
18	2015	Elder	TCP	Sexual Self-Schemas of Gay Men: A Qualitative Investigation
19	2013	Ellis	JCP	Negotiating identity development among undocumented immigrant college students: A grounded theory study
20	2018	Flores	JCP	Transgender people of color's experiences of sexual objectification: Locating sexual objectification within a matrix of domination.
21	2011	Flynn	JCD	An Emergent Theory of Altruism and Self-Interest
22	2014	Flynn	JCD	American Indian Acculturation: Tribal Lands to Predominately White Postsecondary Settings
23	2003	Fouad	TCP	Leadership in Division 17: Lessons from the Presidential Addr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	2018	Gibson	JCD	Examining leadership with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presidents
25	2008	Haberstroh	JCD	Facilitating Online Counseling: Perspectives From Counselors in Training
26	2014	Han	TCP	Critical Secret Disclosure in Psychotherapy With Korean Clients
27	2015	Hanks	JCD	Relational Dynamics Within the Context of Deafness: A Case Study of the Supervision Triad
28	2016	Hoover	JCD	A Qualitative Study of Feminist Multicultural Trainees' Social Justice Development

표 2. 북미지 분석 논문 목록

(계속)

번호	발행연도	제1저자	학술지	제목(일부 생략)
29	2015	Inman	TCP	Perceptions of Race-Based Discrimination Among First-Generation Asian Indians in the United States
30	2017	Katz-Wise	JCP	Imagining the future: Perspectives among youth and caregivers in the trans youth family study
31	2001	Kinnier	JCD	In the Final Analysis: More Wisdom From People Who Have Faced Death
32	2011	Latta	TCP	Intervening in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A Grounded Theory Exploration of Informal Network Members' Experiences
33	2006	Levitt	JCP	What clients find helpful in psychotherapy: Developing principles for facilitating moment-to-moment change
34	2009	Levitt	JCP	Balancing dangers: GLBT experience in a time of anti-GLBT legislation
35	2005	Moore	JCD	Expanding the View: The Lives of Women With Severe Work Disabilities in Context
36	2014	Moss	JCD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 Grounded Theory of Transformational Tasks of Counselors
37	2006	Nelson	JCP	Class jumping into academia: Multiple identities for counseling academics
38	2004	Noonan	JCP	Challenge and Success: A Qualitative Study of the Career Development of Highly Achieving Women With Physical and Sensory Disabilities
39	2016	O'Shaughnessy	TCP	The Career Adjustment Experiences of Women Early Career Psychologists
40	2000	Petersen	JCD	Multicultural Perspective on Middle-Class Women's Identity Development
41	2002	Pope-Davis	TCP	Client Perspective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A Qualitative Examin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2	2017	Shawna	TCP	Make It Personal: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White Counselors' Multicultural Awareness Development
43	2012	Shen-Miller	TCP	Contextual Influences on Faculty Diversity Conceptualizations When Working With Trainee Competence Problems
44	2008	Sorsoli	JCP	I keep that hush-hush: Male survivors of sexual abuse and the challenges of disclosure
45	2012	Thompson	JCP	Recognizing social class in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A grounded theory exploration of low-income clients
46	2013	Thompson	JCP	A grounded theory exploration of undergraduate experiences of vicarious unemployment
47	2003	Timlin-Scalera	JCP	A grounded theory study of help-seeking behaviors among White male high school students
48	2011	Todd	TCP	White Dialectics: A New Framework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With White Students
49	2008	Tuason	JCP	Those who were born poor: A qualitative study of Philippine poverty
50	2008	Vliet	JCP	Shame and resilience in adulthood: A grounded theory study
51	2003	Vogel	JCD	Counselors' Perceptions of Female and Male Clients
52	2005	Ward	JCP	Keeping It Real: A Grounded Theory Study of African American Clients Engaging in Counseling at a Community Mental Health Agency
53	2014	Whisenhunt	JCD	Working With Clients Who Self-Injure: A Grounded Theory Approach
54	2008	Yeh	JCP	Poverty, loss, and resilience: The story of Chinese immigrant youth

‘qualitative study’를 주요 주제어로 검색하여, 북미 상담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이며 학술지 명에 ‘counseling’이 포함된 JCD, JCP, TCP 3개 학술지가 검색되었다. JCD와 JCP는 각각 북미의 상담관련 대표적인 학회인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이하, ACA)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이하, APA)의 학회지이며, TCP는 미국 저명한 SAGE Publishing에서 출간하는 APA 제 17분과인 ‘society of counseling psychology’의 학술지이다. 3개 학술지는 북미 대표적인 상담학 분야 학회(Hill, 2009; 김은경, 김현주, 2017)에서 출간하는 상담학 대표 학술지로 해당 학술지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게재된 연구를 전수조사 하였다. 국내 논문 검색절차와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논문들의 제목, 주제어, 초록을 검토하여 근거이론이 명시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색된 논문들 중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절충적으로 사용한 혼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과 근거이론이 명시되지 않은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표 1과 표 2와 같이 국내 논문 79편, 북미 논문 54편 총 133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정자

본 연구의 평정자는 다수의 질적연구 및 근거이론 연구, 질적연구 동향분석 연구를 수행한 질적연구 전문가인 상담학 교수 1인, 상담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을 주제로 연구물 출판 경험이 있는 상담학 전공 박사과정 1인, 상담학 전공 석사 1인 총 3인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주 1회 모임을 통해 자료수집

과정부터 분류 및 평정작업까지 평정자 3인의 합의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과정, 분석절차, 분석결과에 대하여 질적연구 전문가인 상담학 전공 교수 1인과 상담 전문가인 교수 2인으로 구성된 논의팀의 피드백을 받아 이를 분석결과에 반영하였다.

평정절차

본 연구의 평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상담분야의 학술지를 선정하고 제목, 주제어, 초록, 본문 내용을 모두 살펴서 근거이론이 명시된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차로 선정한 북미 학술지는 JCD와 JCP였으나, 평정과정 중 북미 연구논문 수와 국내 연구논문 수를 고려해볼 때 균형 있는 비교를 위하여 북미 학술지 추가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TCP를 분석대상에 추가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상담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김계원 등, 2011; 조성호, 2003; Buboltz, Miller, & Williams, 1999; Buboltz, Deemer, & Hoffmann, 2010)와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권경인, 양정연, 2013; 김봉환 등, 2012; 박승민, 2012), 특정 주제, 특정 연구방법론의 동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김영신, 박지은, 2011; 손은정, 2010; 지승희, 오혜영, 2013; Hoyt & Bhati, 2007; Chui et al, 2012)를 참고하여 평정팀과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분류범주를 정하였다. 셋째, 평정자 3인이 선행연구를 참조한 평정항목과 분류범주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합의된 분류범주에 따라 분석대상 10편을 1차 분류하

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평정팀과 재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류범주를 확정하였다. 분류과정 중 분류범주에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거나 중복되는 경우 평정팀과 논의하여 합의를 통해 분류범주를 재수정하여 진행하였다.

평정도구

본 연구의 평정도구는 연구동향분석 관련 선행연구(권경인, 양정연, 2013; 김계원 등, 2011; 김봉환 등, 2012; 박승민, 2012; 조성호, 2003; 지승희, 오혜영, 2013; buboltz et al, 1999)의 분류범주를 참고하였다. 분류범주의 각 세부항목은 권경인, 양정연(2013)의 질적연구 동향분석 연구와 지승희, 오혜영의 CQR 동향 연구(2013)의 분류항목을 토대로 일부 항목을 수

정 보완하여 표 3과 같이 분류범주 및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범주에 따라 국내 및 북미 상담분야에서 이루어진 근거이론 연구의 기초사항, 연구주제, 연구대상, 참여자 수, 자료수집방법, 인터뷰시간, 연구타당도 검증기준, 자료분석방법, 연구팀 구성방법, 이론도출을 살펴보았다. 기초사항은 연도별 게재된 근거이론 연구와 게재학술지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연구주제는 조성호(2003)와 김계원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주제 세부항목을 참고하였다. 연구분석대상의 예비분류 결과를 토대로 평정팀과 합의과정을 거쳐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적절하게 분류범주와 세부항목을 수정하였으며,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분석대상의 예비분류 결과 척도개발 관련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거이론 연구방법

표 3. 분류범주 및 세부항목

분류범주	세부항목
기초사항	논문출처, 출판연도
연구주제 (6개 영역)	상담과정 및 성과, 상담자 특성·훈련 및 수퍼비전, 성격특성 및 적응, 진로 및 적성,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기타
연구대상 (12개 영역)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부부/가족, 소수집단, 유학생, 상담자, 내담자, 다문화, 기타
참여자 수	참여자 수에 따른 분포
자료수집방법 (6개 영역)	심층면접, 면접 외 자료, 포커스그룹면접(FGI), 면접+FGI, 면접+면접 외 자료, 기타
인터뷰시간	평균 인터뷰 진행시간에 따른 분포
연구타당도 검증기준	연구참여자 검증, 동질집단 검증, 전문가집단의 합의 및 검토
자료분석방법	Glaser, Strauss & Corbin, Charmaz, Rennie, 기타
연구팀 구성방법	저자 수, 분석팀, 감수팀
이론도출	범주화, 패러다임, 과정분석, 유형화, 상황모형, 생성이론(emergent theory), 개념도, 기타

에 따른 질적연구에서 양적연구의 측정도구인 척도개발연구가 연구주제의 세부항목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평정팀의 합의에 따라 척도개발연구는 연구주제 분류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실제 이론(substantial theory)를 제시하는데 유용한 질적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정팀과 합의과정을 통해 문헌에 대한 이론연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질적연구 가운데 근거이론의 고유한 특성인 이론도출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론도출의 분류범주를 추가하고 범주화, 패러다임, 과정분석, 유형화, 상황모형, 생성이론, 개념도, 기타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성과연구는 구체적인 개입절차와 개입에 대한 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로(김계원 등, 2011) 경험의 내용을 탐색하는 근거이론 질적연구 방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연구주제 세부항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정팀의 합의에 따라 연구주제 분류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근거이론 연구방법에서 과정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의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Strauss & Corbin, 1998),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여 상담과정 및 성과의 연구주제 분류범주로 통합하였다. 다섯째, 성격특성 및 적응의 분류범주에 대하여 선행연구(조성호, 2003)에서는 내담자와 특수집단, 일반인의 성격 및 심리특성, 성장 및 발달, 스트레스, 적응 등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 및 가족의 성격특성과 태도, 적응 등의 문제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김계원 등 2011). 선행연구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

의 예비분류에서 나타난 개인 및 가족의 성격 및 심리특성, 성장 및 발달, 스트레스와 적응, 특수집단의 발달 및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성격특성 및 적응의 연구주제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에 대한 평정팀과 합의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주제 세부항목은 상담과정 및 성과, 상담자 특성·훈련 및 수퍼비전, 성격특성 및 적응, 진로 및 적성,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기타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여섯째, 근거이론 방법론의 특성과 유용성을 대표하는 이론도출 분류범주를 추가하고 세부항목은 근거이론 방법의 실제이론 제시를 위한 분석과정을 토대로 범주화, 패러다임, 과정분석, 유형화, 상황모형, 생성이론, 개념도, 기타로 분류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에서 이론도출은 범주화와 범주들간의 관련성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는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Strauss & Corbin, 1998).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동의 변이를 도출하는 과정분석과 범주들간의 관련성을 통한 유형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맥락을 통합하는 상황모형, 이상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생성이론, 개념도와 기타 과정을 포함한다. 근거이론에서 이론도출 과정은 개별적이고 단절된 개념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에서(Strauss & Corbin, 1998) 이론도출의 세부항목들은 범주화 이후 패러다임, 과정분석 혹은 유형화를 포함하기도 하는 등 중복 분류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12개 영역(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부부/가족, 소수집단, 유학생, 상담자, 내담자, 다문화, 기타)으로 항목을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연구타당도 검증기준은 근거이론 연구의 연구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 검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료분석방식은 연구

의 자료분석 단계에서 제시한 저자명을 기준으로 근거이론의 자료분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팀 구성방식은 저자 수, 분석팀, 감수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론도출은 이론도출 및 기술방식에 따라 범주화, 패러다임, 과정분석, 유형화, 상황모형, 생성이론(emergent theory), 개념도, 기타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결 과

기초사항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근거이론을 활용한 국내 연구는 ‘상담학연구’ 59편, ‘상담 및 심리치료’ 20편, 북미 연구는 JCD 13편, JCP 23편, TCP 18편으로 표 4와 같이 국내 학술지 79편, 북미 학술지 54편이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

표 4. 기초사항

연도	국내1	국내2	북미1	북미2	북미3	국내전체	북미전체	전체합계
2000	-	-	1	-	-	-	1	1
2001	-	-	1	-	-	-	1	1
2002	-	-	-	-	1	-	1	1
2003	-	-	1	1	1	-	3	3
2004	1	1	-	1	1	2	2	4
2005	3	-	1	1	-	3	2	5
2006	-	1	-	2	-	1	2	3
2007	4	-	-	-	-	4	-	4
2008	2	1	1	4	-	3	5	8
2009	6	1	-	3	1	7	4	11
2010	2	1	1	1	-	3	2	5
2011	5	3	1	-	2	8	3	11
2012	3	1	-	1	1	4	2	6
2013	1	2	-	2	2	3	4	7
2014	5	3	3	1	2	8	6	14
2015	9	3	1	1	4	12	6	18
2016	8	2	1	-	2	10	3	13
2017	5	1	-	3	1	6	4	10
2018	5	-	1	2	-	5	3	8
합계	59	20	13	23	18	79	54	133

주. 국내1 = 상담학연구 / 국내2 = 상담 및 심리치료 / 북미1 =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 북미2 =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북미3 = The Counseling Psychologist

면, 대입수험생 어머니의 불안과 가족경계에 대한 연구(최지영, 2004)와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백은정, 유영권, 2004)를 시작으로 질적연구의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 2007년 이후로 ‘상담학연구’에 매년 1-9편의 근거이론 연구가 게재되었고, ‘상담 및 심리치료’에 2008년 이후 1-3편의 근거이론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북미 학술지별로 보면,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발달에 관한 Petersen의 연구(2000)가 근거이론으로는 처음으로 JCD에 게재되었다. 다음으로 TCP에 다문화상담 유능성에 관한 내담자의 인식 연구(Pope-Davis et al., 2002)가 게재되었으며, 2003년 JCP에 백인 남자고등학생들의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연구(Timlin-Scalera, Ponterotto, Blumberg, & Jackson, 2003)가 소개되었다. 연도별 국내·북미 근거이론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학술지는 2004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2009년 7편으로 게재 논문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2편, 10편으로 근거이론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북미 학술지는 2008년 이후 매년 2-6편의 연구가 꾸준히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주제

근거이론 연구주제별 동향에 따르면(표 5),

‘성격특성 및 적응’에 대한 연구가 국내 38편(48.1%), 북미 29편(53.7%)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슈퍼비전’에 대한 연구가 국내 19편(24.1%), 북미 14편(25.9%)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내의 경우 ‘진로 및 적성’ 12편(15.2%), ‘상담과정 및 성과’ 5편(6.3%),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1편(1.3%), ‘기타’ 2편(2.5%)으로 나타났다. 북미는 ‘상담과정 및 성과’ 7편(13.0%), 진로 및 적성 2편(3.7%),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와 ‘기타’ 각 1편(1.9%)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 및 적응 연구주제에서 국내의 경우 온라인게임·인터넷 과다사용 및 중독, 가족의 관계변화와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반면, 북미에서는 소수자 및 인종, 이주민 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성격특성 및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국내의 경우 온라인게임, 인터넷 과다사용(박승민, 김창대, 2005; 임은미, 박승민, 장선숙, 2007) 및 중독 관련 연구(구승례, 차명호, 2007; 윤혜정, 권경인, 2011; 이명운, 김병석, 2015; 장창민, 2005) 6편(7.6%), 심리적 외상 관련 연구 4편(5.1%)(박철욱, 안현의, 2016; 서영석, 안하얀, 이채리, 최정운, 2015; 서영석 등, 2016; 임선영 201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의 관계 변화와 가족이 경험하는 주요사건과 관련한

표 5. 연구주제

출처	상담과정 및 성과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슈퍼비전	성격특성 및 적응	진로 및 적성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기타	합계
국내	5	19	38	12	3	2	79
북미	7	14	29	2	1	1	54

적응과정을 주제로(8편, 10.1%), 대입수험생 어머니의 불안과 가족경계(최지영, 2004), 결혼과정을 통해 본 모-자녀 관계변화(최지영, 2009), 이혼소송 과정(김요완, 2009), 대상관계에 근거한 부부갈등 변화과정(김명애, 송정아, 2012),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갈등 극복과정(이영미, 한재희, 2013), 재혼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과정(변복수, 박승민, 2015), 부정적 양육의 대물림 극복과정(이문희, 이수림, 2015), 가족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애도과정(이윤희, 김지연, 2016)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혼여성에서 기혼여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심리적 변화(남주연, 김진숙, 2014),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박경은, 유영권, 2017), 결혼적령기 남성의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박경은, 2017) 등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한정애, 천성문, 김은정, 2008; 강유미, 신혜중, 2010; 고유선, 김태호, 2011). 이밖에 소수자의 적응과정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기독교 남성 동성애자의 스트레스 적응과정(백은정, 유영권, 2004), 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 변화과정(이은진, 유성경, 2011),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장애수용과정(김윤희, 김진숙, 2014)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북미의 성격특성 및 적응 연구주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성소수자 특성에 대한 연구 10편(18.5%)(Arm, Horne, & Levitt, 2009; Levitt et al, 2009; Budge, Tebbe, & Howard, 2010; Budge et al, 2013; Budge, Orovecz, & Thai, 2015; Elder, Morrow, & Brooks, 2015a; Elder Morrow, & Brooks, 2015b; Budge, Chin, & Minero, 2017; Katz-Wise et al, 2017; Flores, et al, 2018), 인종 및 이주민에 대한 연

구 6편(Yeh, Kim, Pituc, & Atkins, 2008; Timlin-Scalera et al., 2003; Todd & Abrams, 2011; Ellis & Chen, 2013; Flynn, Olson, & Yellig, 2014; Capodilupo & Kim 2014; Inman, Tummala-Narra, Kaduvettoor-Davidson, Alvarez, & Yeh, 2015)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상담과정 및 성과’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상담요청 결정과정(오현수, 김진숙, 2012), 낮은 효과를 보인 상담과정(한영주, 권경인, 김창대, 유성경, 2012)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북미의 경우 내담자 성별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Vogel, Epting, & Wester, 2003)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수퍼비전’은 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방기연, 2006), 상담자의 다문화상담역량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Pope-Davis et al, 2002)에 대한 연구 이후 국내·북미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성격특성 및 적응’은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불안과 가족경계에 관한 목회상담(최지영, 2004), 기독교인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 적응과정(백은정, 유영권, 2004), 다문화관점에서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Petersen, 2000)가 이루어졌다. 또한, ‘진로 및 적성’과 관련하여 학업우수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하정, 유성경, 2007), 높은 성취를 이룬 여성장애인의 직업 발달과정(Noonan et al, 2004)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에서는 폭식장애 여대생의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박태영, 조성희, 2005), 청각장애를 지닌 상담훈련생이 수퍼비전 과정에서 경험한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수화통역사와의 관계역동(Hanks & Hill, 2015)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타’로는 감사경험을 통해 안녕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연구(김

경미, 김정희, 2011)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7분과인 상담심리학회 학회장의 취임연설문을 분석한 연구(Fouad, Helledy, & Metz, 2003)가 있다. 국내·북미 연구주제에서 공통적으로 ‘성격특성 및 적응’(국내 48.1%, 북미 53.7%)과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수퍼비전’(국내 24.1%, 북미 25.9%)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및 적성’(국내 15.2%, 북미 3.7%)의 경우 국내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

연구대상별 연구 동향은(표 6), 국내·북미 공통적으로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국내 24편 30.4%, 북미 15편 27.8%)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어 국내는 성인 17편(21.5%), 대학생 13편(16.5%), 청소년 10편(12.6%), 소수집단 5편(6.3%), 다문화 4편(5.1%), 부부·가족 3편(3.8%), 내담자 3편(3.8%), 유학생 1편(1.3%), 기타 1편(1.3%)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연구에서는 상담자에 이어 소수집단 13편(24.0%), 성인 6편(11.1%), 다문화 6편(11.1%), 내담자 5편(9.3%), 대학생 4편(7.4%), 청소년 2편(3.7%), 기타 2편(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노인, 부부/가족, 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북미 연구동향에서 연구대상의 경우, 공통적으로 상담자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보다 대학생과 성인 대상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김현주, 유성경, 2008)가 이루어졌다.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의 경우 국내 5편(6.6%), 북미 12편(23.5%)으로 북미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북미 연구에서 12편 중 10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Arm et al, 2009; Beckstead & Morrow, 2004; Budge et al, 2010; Budge et al, 2013; Budge et al, 2015; Budge et al, 2017; Elder et al, 2015a; Elder et al, 2015b; Katz-Wise et al, 2017; Levitt et al, 2009)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백은정, 유영권(2004)의 기독 남성 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연구 1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로 진행되었다.

참여자 수

참여자 수의 경우 표 7과 같이, 국내 연구는 ‘7명-9명’이 25편(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명-12명’ 21편(26.6%), ‘13명-16명’ 13편(16.5%), ‘17명-20명’ 8편(10.1%), ‘1명-6명’ 5편(6.3%), ‘21명-29명’ 4편(5.1%). ‘30명이상’ 3편

표 6. 연구대상

출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국내	-	10	13	17	-	3	5	1	24	3	4	1	80*
북미	-	2	4	6	-	-	13	-	15	5	7	2	54

주. *서영석 등(2015), 서영석 등(2016)의 연구는 청소년, 대학생 2개 영역에 해당

주. 1 = 아동 / 2 = 청소년 / 3 = 대학생 / 4 = 성인 / 5 = 노인 / 6 = 부부,가족 / 7 = 소수집단 / 8 = 유학생 / 9 = 상담자 / 10 = 내담자 / 11 = 다문화 / 12 = 기타

표 7. 참여자 수

출처	1명-6명	7명-9명	10명-12명	13명-16명	17명-20명	21명-29명	30명이상	전체
국내	5	25	21	13	8	4	3	79
북미	4	-	12	8	13	11	6	54

(3.8%)으로 나타났다. 빈도수가 가장 높은 참여자 수는 9명(13편, 16.5%), 10명(10편, 12.7%), 8명(10.1%) 순이었다. 참여자 수가 가장 적은 연구는 폭식장애를 경험하는 여대생 1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박태영, 조성희, 2005)이며, 가장 많은 경우는 미술창작 관련 논문 82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은우, 최선남, 2014)로 나타났다.

북미 연구의 참여자 수는 ‘17명-20명’ 13편(24.0%), ‘10명-12명’ 12편(22.2%), ‘21명-29명’ 11편(20.4%), ‘13명-16명’ 8편(14.8%), ‘30명이상’ 6편(11.1%), ‘1명-6명’ 4편(7.4%)으로, 가장 높은 빈도의 참여자 수는 11명, 18명, 22명으로 각 4편(7.4%)이었다. 가장 적은 참여자 수는 3명으로 청각장애 상담수련생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연구(Hanks & Hill, 2015)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참여자 수는 북미 지역 중국출신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Yeh, et al., 2008)에서 7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는 12명 이하 참여자로 진행된 연구가 51편(64.6%)으로 절반이상이었고, 북미의 경우 13명 이상인 연구 38편(70.4%), 12명 이하인 연구 16편(29.6%)으로 국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 참여자

수를 나타냈다.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을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심층면접이 국내 62편(78.5%), 북미 42편(77.8%)으로 주를 이루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에 이어 면접 외 자료 4편(5.1%), 면접과 포커스그룹면접 5편(6.3%), 면접과 면접 외 자료 4편(5.1%), 포커스그룹면접 3편(3.8%), 기타 1편(1.3%)으로 나타났다. 면접 외 자료로는 상담수련생의 성찰일지(홍지영, 하정, 2009), 상담일지 및 상담관련자료(고문정, 2015; 김효정, 김봉환, 2011),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일기장 및 자서전(이명윤, 김병석, 2015)이 있다. 이명윤과 김병석(2015)은 알코올중독자의 단주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과 면접 외 자료로 단주일기장, 자서전을 수집하고, 참여관찰을 진행하여 다각화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북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접 외에 면접과 포커스그룹면접 5편(9.3%), 면접 외 자료 2편(3.7%), 면접과 면접 외 자료 3편(5.6%), 포커스그룹면접 2편(3.7%)이었으며, 면접 외

표 8. 자료수집방법

출처	심층면접	면접 외 자료	포커스 그룹면접	면접+포커스 그룹면접	면접+면접 외 자료	기타	전체
국내	62	4	3	5	4	1	79
북미	42	2	2	5	3	-	54

자료는 취임연설문(Fouad et al, 2003)과 사진(Flynn & Black, 2011)으로 나타났다. 북미 연구에서는 참여자 그룹을 다양하게 모집하여 자료수집의 다각화를 모색하였는데, 중국출신 이민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Yeh et al, 2008)에서는 70명의 참여자를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학생집단 4개, 교사집단 3개, 학부모집단 2개, 학교 내 상담 및 지원부서 집단 1개의 포커스 그룹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밖에 Flynn et al. (2014)과 Timlin-Scalera et al. (2003)의 연구에서 포커스그룹면접이 실시되었다.

인터뷰시간

인터뷰시간은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터뷰 시간의 범위가 연구들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평균 인터뷰시간을 분석하였으며, 최소·최대 인터뷰시간만 제시하였을 경우 평균시간을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표 9), 인터뷰시간은 ‘90-150분’이 국내 29편(36.7%), 북미 25편(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90분’이 국내 23편(29.1%), 북미 17편

(31.5%)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시간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국내 14편(17.7%), 북미 4편(7.4%)으로 국내 연구에서 인터뷰시간을 제시하지 않은 비중이 높았고, ‘60분 이하’는 국내 9편(11.3%), 북미 8편(14.8%)으로 나타났다. ‘150분 이상’은 국내 4편(5.1%)이었다. 일반적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1~2회 진행하고, 자료 추가 및 연구자의 판단 하에 참여자 일부에 대해 추가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3차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김명애와 송정아(2012), 유근준과 김봉환(2010), 채후남과 이지연(2015)의 연구에서는 4차까지 면접이 이루어졌다.

연구타당도 검증기준

연구타당도 검증기준의 경우, 국내 및 북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검증, 동질집단 검증, 전문가 집단의 합의 및 검토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언급안함’은 연구타당도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검증기준이 아닌 연구타당도 검증기준을 의미한

표 9. 인터뷰시간

출처	60분 이하	60~90분	90~150분	150분 이상	제시하지 않음	전체
국내	9	23	29	4	14	79
북미	8	17	25	-	4	54

표 10. 연구타당도 검증기준

출처	언급안함	1개기준	2개기준	3개기준	연구참여자 검증	동질집단 검증	전문가 집단의 합의 및 검토
국내 (79편)	5	10	27	37	62	41	72
북미 (54편)	1	14	36	3	42	4	49

다. 표 10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3가지 검증 기준을 모두 사용한 연구가 37편(46.8%)으로 가장 많았고, 북미는 2개 검증기준을 사용한 연구가 36편(66.7%)으로 가장 많았다. 개별 검증기준을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의 합의 및 검토’가 국내 72편(91.3%), 북미 49편(90.7%)으로 지배적이었으며, 다음으로 ‘연구참여자 검증’이 국내 62편(78.5%), 북미 42편(77.8%)으로 나타났다. ‘동질집단 검증’은 북미 4편(7.4%)으로 나타나 국내 41편(51.9%)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자료분석방식

자료분석방식의 경우(표 11), ‘Strauss & Corbin’의 접근 방식을 사용한 연구가 국내 77편(97.5%), 북미 24편(44.4%)으로 국내 근거이론 연구의 경우 주로 Strauss & Corbin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자료분석방식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 절차를 적용한 한영주 등(2012)의 연구와 폭식장애 여대생의 사례 범주들 간 관계를 개념도로 제시한 연구(박태영, 조성희, 2005)가 이루어졌다.

북미 연구에서는 제1세대 근거이론 이후 Charmaz의 접근방식을 적용한 연구 13편(Arczynski & Morrow, 2017; Budge et al, 2010; Budge et al, 2013; Budge et al, 2015; Budge et al, 2017; Burnes, Wood, Inman, & Welikson,

2013; Daly & Mallinckrodt, 2009; Hoover & Morrow, 2016; Katz-Wise et al, 2017; O’Shaughnessy & Burnes, 2016; Shen-Miller, Forrest, & Burt, 2012; Todd & Abrams, 2011),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 분석방식을 적용한 연구 4편(Arm et al, 2009; Han & O’Brien, 2014; Levitt, Butler, & Hill 2006; Levitt et al, 2009)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다양한 근거이론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진행되어 보다 다양한 자료분석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팀 구성방식

본 연구에서 연구팀 구성방식의 세부항목은 저자, 분석팀, 감수팀으로 분류하였다(표 12). 저자수를 살펴보면, 국내는 2인(64.6%), 1인(20.3%), 3인(7.6%), 4인 이상(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미는 4인이상(35.2%), 2인(27.8%), 3인(27.8%), 1인(9.3%)으로 나타났다. 분석팀의 경우, 국내는 1인(51.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북미는 4인 이상(29.6), 3인(25.9%), 2인(24.15), 1인(18.5%) 순으로 나타났다. 감수팀은 국내의 경우 4인 이상과 2인이 각 29.1%로 가장 많았으며, 북미는 1인(40.7%)이 다른 구성방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내와 북미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내는 저자가 2인(64.6%)이며, 분석팀 1인(51.9%), 감수팀 2인과 4인 이상(각 29.1%)의 구성방식이

표 11. 자료분석방식

출처	Glaser	Strauss & Corbin	Charmaz	Rennie	기타	전체
국내	-	77	-	1	1	79
북미	-	24	13	4	13	54

표 12. 연구팀 구성방식

출처	저자 수				분석팀				감수팀					
	1인	2인	3인	4인 이상	1인	2인	3인	4인 이상	미표기	1인	2인	3인	4인 이상	미표기
국내 (79편)	16	51	6	6	41	17	6	6	9	10	23	14	23	9
북미 (54편)	5	15	15	19	10	13	14	16	1	22	11	7	4	10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미는 저자 4인 이상(35.2%), 분석팀 4인 이상(29.6%), 감수팀 1인(40.7%)의 비중이 높았다. 국내 연구팀은 저자수와 분석팀을 1~2인으로 진행하되, 감수팀을 2인 이상으로 두어 연구의 충실도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저자와 분석팀 수가 3인, 4인 이상인 논문이 절반이상이었으며, 감수팀은 1인(40.7%)로 두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론 도출

본 연구에서 이론 도출의 세부사항은 범주화, 패러다임, 과정분석, 유형화, 상황모형, 생성이론, 개념도, 기타로 분류하였다(표 13). 본 연구결과 이론도출 가운데 범주화는 국내 79편(100%), 북미 54편(100%)에서 나타났는데, 범주화는 개념 및 보다 추상적인 하위범주와 범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코올의존 부부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에서는 분노경험을 유형, 정서, 행동, 영향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고(구승례, 차명호, 2007),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의 효과요인을 살펴본 북미 연구(Levitt et al, 2006)에서는 범주와 범주의 집합체인 클러스터(Cluster)를 빈도분석과 함께 도식화하였다.

패러다임은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내 64편(81.0%), 북미 7편(13.0%)으로 나타나 국내연구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임은미, 박승민과 장선숙(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조절과정 결과를 3개 집단별(변화집단, 자연변화, 과다사용 지속집단)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여 각각의 경험을 개별적,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미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Flynn, et al., 2014)에서 문화적응현상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과정분석은 국내 48편(60.8%), 북미 13편(24.1%)으로 나타났다. 과정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용상호작용의 변화를 통해 행위의 변이를 제시한다. 김명애, 송정아(2012)의 연구에서는 아내가 경험하는 부부갈등 과정을

표 13. 이론도출

출처	범주화	패러다임	과정분석	유형화	상황모형	생성이론	개념도	기타
국내 (79편)	79	64	48	10	4	1	1	-
북미 (54편)	54	7	13	4	3	25	1	1

6단계로 분석하였고, 김요완(2009)은 실제 이혼소송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소송과정을 7단계로 도표화하였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연구(Budge et al, 2013)에서는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정서적/대처 과정을(pre-transition, during the transition, post-transition) 제시하였고, 양성애자에 대한 연구(Elder, et al, 2015a; Elder et al, 2015b)에서는 양성애자의 성적지향 인식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유형화를 제시한 연구는 국내 10편(12.7%), 북미 4편(7.4%)으로, 유형화는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른 가설을 통해 유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하정(2008)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직업 결정 유형을 ‘자기주도 성취형’, ‘자기선택 만족형’, ‘현실수용 타협형’, ‘상황의존 갈등형’으로 제시하였다. 북미 애착유형에 따른 상담접근방식을 제시한 연구(Daly & Mallinckrodt, 2009)에서는 불안형과 회피형으로 분류하여 상담단계에 따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적 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상황모형은 현상과 관련하여 개인, 가족, 사회, 국가를 포괄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상황적 조건이 작용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상황모형을 제시한 연구는 국내 4편(5.1%), 북미 3편(5.6%)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고려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남주, 권정아, 2017)에서는 적응경험의 핵심범주로 ‘갈등과 후회 속에서 적응의 씨앗 심기’를 도출하고,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차원의 적응과정을 상황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북미 소수민족 출신 박사과정 학생 멘토링(mentoring) 연구(Chan, Yeh, & Krumboltz, 2015)에서는 멘토 교수와 학생들을 참여자로 멘토링 경험에 대하여 가족, 학교, 전문영역, 사회문화 차원의 원형도표로

설명하고 있다.

생성이론(emergent theory)은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적, 추상적으로 이론화하여 기술한 것으로 국내 1편(1.3%), 북미 25편(46.3%)에서 생성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이론을 제시한 연구로는 초심 여성 직업심리학자의 직업 적응에 관한 연구(O'Shaughnessy & Burnes, 2016), 전문 심리상담에서 나타나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경험에 대한 연구(Flynn & Black, 2011), 신체 및 신경장애를 지닌 여성의 직업발달에 대한 사례연구(Noonan et al, 2004) 등이 있다.

개념도는 개념들 간의 관계를 개념도(conceptual map)로 제시한 것으로 국내 1편(1.3%), 북미 1편(1.9%)편으로 나타났다. 폭식장애를 겪고 있는 여대생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폭식장애 경험에 대한 범주화를 기술하고 범주들 간의 관계를 개념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박태영, 조성희, 2005). 북미에서는 Hanks와 Hill(2015)의 연구에서 청각장애를 지닌 상담 수련생, 수화통역가, 수퍼바이저의 관계 역동을 개념도로 설명하였다.

기타는 이론 도출에서 위의 세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북미 1편(1.9%)으로 나타났다. 미국심리학회 17분과 학회장의 취임연설문을 분석한 연구(Fouad et al, 2003)에서는 2개 차원(상담사의 정체성, 연설내용의 영역)을 X축과 Y축으로 구분하여 연설문 내용에 대한 이론적 기술을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및 북미 학술지에 2010-2018년 게재된 상담분야 근거이론 연구의 동

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학술지는 국내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와 ‘상담학연구’, 북미 학술지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사항, 연구주제, 연구대상, 참여자 수, 자료수집방법, 인터뷰시간, 연구타당도 검증기준, 자료분석방식, 연구팀 구성방식, 이론도출 총 10개 영역을 중심으로 근거이론 연구 133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사항의 연도 및 출처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국내 근거이론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국내에서 2000-2018년까지 발표된 근거이론 연구는 ‘상담학연구’ 59편, ‘상담 및 심리치료’ 20편이었으며, 북미의 경우 JCD 13편, JCP 23편, TCP 18편이었다. 국내는 상담학연구에서 근거이론 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었으며, 북미는 JCP에 가장 많은 근거이론 논문이 발표되었고 2011년 이후 TCP에 최소 1편 이상씩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담분야 학술지에 근거이론 연구가 등장한 시기는 2004년으로 북미보다 늦지만 2009년 7편의 근거이론 연구가 발표되면서 근거이론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인다. 북미의 경우 JCP에서 2005년 질적연구방법론 특집호가 발간되어 북미 상담연구에서 근거이론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국내 근거이론 연구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상담분야의 학문적, 실천적 발전이 주로 북미 상담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윤호균, 2007; 천성문, 2016). 국내 상담분야 근거이론 연구의

증가 역시 북미에서 질적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근거이론이 질적연구 방법 가운데 양적 패러다임과 연결되는 구조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이현진, 김명찬, 2018; 권경인, 양정연, 2013) 양적연구가 전체연구의 80-90%를 차지하는 국내 상담연구의 추세를 고려할 때(최이선, 2016) 선호되는 질적연구 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주제의 경우 국내·북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개인의 성격특성과 적응에 대한 이해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이어서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격특성 및 적응’ 연구주제가 국내·북미 근거이론 연구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 근거이론이 경험의 변이를 탐색하는 데 적절한 연구방법으로(박승민, 2012) 적응과 같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주제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진로 및 적성’(국내 15.2%, 북미 3.7%), ‘상담과정 및 성과’(국내 6.3%, 북미 13.0%) 관련 연구주제의 비중은 국내·북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성격특성 및 적응과 관련한 연구주제에서는 국내의 경우 온라인게임·인터넷 과다사용 및 중독, 가족의 관계변화와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반면, 북미에서는 소수자의 적응과정과 인종 및 이주민 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담분야 연구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의 미흡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조남정 등, 2010), 이

주인구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김현주, 2016)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다문화와 소수집단에 대한 상담 분야 근거이론 연구는 북미 연구에 비교할 때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상담자 외에 성인 17편(21.5%), 대학생 13편(16.5%)에 집중되고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는 5편(6.3%)에 머무르는 반면, 북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가 13편(24.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미 상담연구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적 환경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Buboltz et al., 2010). 북미의 경우 JCP 연구동향에서 1973-1998년까지 문화적 다양성은 5번째 연구주제였으나, 1999-2009년에는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Buboltz, 2010). 본 연구결과에서도 북미의 경우, 성격 특성 및 적응 연구주제에서 문화적 다양성 관련 주제가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북미 상담분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외국인주민의 수가 2,054,621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행정안전부, 2019)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상담학의 이론적, 실천적 발전을 위하여 상담분야에서 근거이론 연구방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소수집단의 경험에 보다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시대에 문화적 다양성이 상담학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Boboltz, et al., 2010), 국내 상담분야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국내 이주민들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탐색과 이에 적

절한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시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거이론이 질적 연구 가운데 행위의 변이를 탐색하고 개인 및 사회문화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상담학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적용한 상담과정 및 성과 연구 활성화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대상의 경우 국내와 북미 연구에서 ‘상담자’(국내 24편 30.4%, 북미 15편 27.8%)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국내의 경우 8배, 북미는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상담현장의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과정 연구(김종우, 주수산나, 2018),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이혜은, 김동일, 2018), 미국상담학회 회장의 리더십 발달과정(Gibson, Dollarhide, Moss, Aras, & Mitchell, 2018)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상담자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 분야에서 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중요한 주제였으며(Eysenck, 1952; Smith & Glass, 1977; Lambert & Bergin, 1994; Wampold, 2000) 상담자의 치료적 요인에 주목해 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Kim, Wampold, & Bolt, 2006). 본 연구결과는 상담분야의 근거이론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치료적 요인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상담연구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결과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 연구는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소외되어온 아동과 노인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동의 경우 언어화하는 면점으로 그 경험을 탐색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 근거이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면접 외에 심층관찰을 통한 현상학적 연구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유혜령, 1997), 근거이론 연구에서도 면접자료 외에 관찰이나 상징적 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아동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근거이론 연구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Corbin & Strauss, 2008) 노인 상담에서 숙고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 가족관계의 약화, 역할상실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률이 급증하는 등(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17)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확보하기 위한 조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박종원, 정혜숙, 2018) 노년기 삶의 경험에 대한 학문적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년기 경험에 대한 이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조력 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심도 있는 삶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도 노인에 대한 학문적 영역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Pillemer (2011)는 노인이 오랜 시간을 체화한 삶을 살아온 인생의 현자이며 이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탐색은 현재의 삶의 의미탐색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상담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삶의 의미구성이라는 지향점은 노인의 축적된 삶의 경험에 대한 탐색과 교차되어 의미 있는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참여자 수 분석결과 국내의 경우 ‘7명

~9명’ 25편(31.6%), 북미는 ‘17명~20명’ 13편(24.1%)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와 북미 연구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미 연구의 경우 17명 이상이 30편(55.6%)으로 전체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17명 이상이 15편(19.0%), 17명 미만이 60편(81.0%)으로 나타났다. 상담분야의 CQR 연구동향(지승희, 오혜영, 2013)의 경우 국내 CQR 연구 28편의 표집크기는 8명~15명이(13편, 46.4%)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 근거이론 연구의 참여자 수는 7명~16명이 59편(74.7%)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이론 연구의 충실도를 확보할 수 있는 참여자 수는 이론개발을 토대로 이론적 포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르며 현상의 복잡성, 자원, 자료의 풍부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Creswell, 2015). 이론적 포화를 위해 충분한 참여자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Corbin & Strauss, 2008),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근거이론 연구에서 근거이론이 지향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도출을 위해 이론적 포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다 명료한 기준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자료수집방법에서 국내·북미 모두 심층면접 방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북미의 경우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담학 분야 질적연구 경향분석 연구(박승민, 2012)에서도 2003년~2011년 국내 상담학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81편 가운데 68편(84%)이 자료수집방법으로 심층면접이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관찰이나 면접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13편(16%)로 나타났다. 국

내 CQR 연구에서도(지승희, 오혜영, 2013) 자료수집 방법으로 전체 28편 중 21편(75%)이 심층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근거이론을 포함한 질적연구들에서 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이명윤, 김병석(2015)의 연구에서 심층면담과 더불어 참여자 일기, 자서전 등 면접 외 자료수집과 자조모임을 통한 참여관찰을 병행하여 자료의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북미 연구(Flynn, et al., 2014; Timlin-Scalera et al, 2003; Yeh et al, 2008)에서는 포커스그룹면접에서 연구대상 외에 부모, 교사, 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보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에서 면접유형, 관찰, 상징적 자료 등 다각적인 자료의 활용은 근거이론 연구에서 심층묘사(thick description)를 통해 연구의 충실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Creswell, 2015).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 중 하나로 포토보이스(photovoice)는 상징적 시각자료인 사진을 활용하여(Latz & Mulvihill, 2017) 참여자가 생성한 사진과 보고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풍부한 경험(thick description)에 대한 탐색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근거이론과 결합하여 상담학 분야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상담학 분야의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풍부한 참여자의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인터뷰시간을 포함하여 연구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결과, 인터뷰시간은 국내·북미 연구에서 '90~150분'(국내 29편 36.7%, 북미 25편 46.3%), '60~90분'(국내 23편 29.1%,

북미 17편 31.5%), '60분 이하'(국내 9편 11.4%, 북미 8편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시간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는 국내 14편(17.7%), 북미 4편(7.4%)으로 나타났다. Creswell(2015)은 질적연구 과정에서 인터뷰 시행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인터뷰 시간은 인터뷰 질문과정을 잘 이끌어가고 연구참여자의 풍부한 경험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권경인과 양정연(2013)은 이론적 포화를 위해 1차 면접 이후 충분한 후속면접을 통해 심도 있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근거이론 연구에서 자료수집 절차의 구체적 제시를 통해 연구의 충실도 확보를 위한 과정을 명료화하고, 인터뷰 시간뿐만 아니라 인터뷰 횟수 및 후속 인터뷰 방법, 구성된 인터뷰 프로토콜 등 연구절차에 대한 명료한 기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상담분야의 근거이론 연구에서 연구타당도 검증을 위해 적용되어 온 평가기준을 검토해보고 근거이론 연구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 연구타당도 검증기준은 국내 3개 기준(37편, 46.8%), 북미 2개 기준(36편 66.7%)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검증기준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의 합의 및 검토'(국내 72편 91.1%, 북미 49편 90.7%), '연구 참여자 검증'(국내 62편 78.4%, 북미 42편 77.8%), '동질집단 검증'(국내 41편 51.9%, 북미 4편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동질집단에게 피드백을 받아 적용가능성을 검증받는 '동질집단 검증'(권경인, 양정연, 2013)은 국내와 북미 연구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상담학 분야의 근거이

론 연구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Lincoln과 Guba(1985)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포함되는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를 평가하기 위해 전체연구의 절반이 동질 집단 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연구에서 삼각검증(triangulation), 감사(auditing), 반증하는 증거(disconfirming evidence), 참여자와의 협력 등 준거 적용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국내 근거이론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북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선입견 및 주관적 해석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자료수집의 다각화, 연구자 중 일부를 감수자(auditor)로 정하는 연구자-삼각화(Burnes et al., 2013; Haberstroh, Parr, Bradley, Morgan-Fleming, & Gee, 2008; Whisenhunt et al., 2014), 일반적 명제에 반대되는 사례에 주목하며 분석하고 통합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반증사례분석(Creswell, 2012)을 사용한 연구들(Chassman, Kottler, & Madison, 2010; Flynn & Black, 2011; Flynn, et al., 2014; Pope-Davis, et al., 2002)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상담학 분야의 근거이론 연구에서 연구타당도 검증기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근거이론 연구의 충실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자료분석방식의 경우 국내·북미 연구동향을 토대로 국내 근거이론연구의 자료분석방식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Strauss & Corbin'의 자료분석방식을 따르고 있었는데(77편, 97.5%), 이는 북미의 44.4%(24편)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Strauss & Corbin의 분석방식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연구에 비해 북미의 경우 후세대 근거이론 방식인 Charmaz, Rennie 등 다양한 분석방식을 적용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Strauss & Corbin의 자료분석방식을 적용한 연구가 압도적인 빈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 Strauss & Corbin의 자료분석 및 결과제시가 실제이론의 도출을 통해 이론적 함의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정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2000년대 들어 CQR(이진희, 윤호균, 2001), 근거이론(최지영, 2004)을 포함한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상담학 분야 질적연구의 정착이 모색되면서 양적연구가 주류였던 상담학 분야에서 질적연구의 정착을 위해 패러다임 구조를 제시하는 Strauss & Corbin의 방법이 선호되어 왔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질적연구 고유의 지향성을 반영하여 Corbin & Strauss(2014)는 기존의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패러다임 모형에서 수정된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미 연구에서 Charmaz,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근거이론에서 질적연구 고유의 지향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점이라고 하겠다. 향후 국내 근거이론 연구에서 질적연구의 고유성을 지향하며 보다 유연한 자료분석방식의 적용을 모색함으로써 그간의 근거이론 연구의 정착기에서 나아가 새로운 발전기로 학문적 변곡점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연구팀 구성방식에서 연구의 충실도 확보를 위한 논의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저자의 경우 국내는 2인 이하가 84.8%(67편)로 가장 많았고, 북미는 3인 이상이 63%(34편)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팀의 경

우 국내는 1인이 51.9%(41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복미는 2인 이상이 79.7%(43편)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감수팀은 국내 2인, 4인 이상이 각 29%(각 23편)로 가장 많았고, 복미는 1인이 40.7%(22편)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와 비교할 때 복미의 근거이론 연구에서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자간 심도 있는 논의와 입체적 관점의 반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석팀의 지속적 논의과정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근거이론 연구에서 연구의 충실도 확보를 위해 다학제적인 공동연구 활성화 및 분석팀 활용의 유용성 재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아홉째,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고유한 특성이 실제이론을 통한 이론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 나타난 이론도출 및 이론에 대한 기술 방식은 질적 연구 가운데 근거이론의 특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질적연구 가운데 근거이론 방법은 행동의 변이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며 참여자의 경험에 근거한 실제이론을 도출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패러다임 모형은 범주간의 관련성을 통해 인과적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이론도출을 설명하고 있다(Strauss & Corbin, 1998). 패러다임 모형이 질적연구 본연인 탐색적 특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Corbin & Strauss(2014)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을 분류하지 않고,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Corbin & Strauss(2014)를 적용한 이론 도출 방식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부분 패러다임 모형(Strauss & Corbin, 1998)에 따라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할심리 분야의 해체가족 구성원이 경

험하는 외상 후 성장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박정애, 이명우, 2018)에서 Corbin & Strauss(2014)를 적용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한편, 패러다임 모형이나 과정분석은 CQR이나 현상학에서는 제시하지 않으며 근거이론 방법에서 고유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구축이다. 근거이론에서 과정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용상호작용의 변화를 통해 행위의 변이를 제시한다. 유형화는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른 가설을 통해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며, 상황모형은 미시적, 거시적 요소를 고려하여 모든 범주를 설명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개인적, 사회문화적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Corbin & Strauss, 2008). 본 연구결과, 이론도출에서 패러다임 모형의 제시는 국내 64편(81.0%), 복미 7편(13.0%)으로 국내 연구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여 이론도출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분석을 제시하는 경우도 국내는 48편(60.8%), 복미 13편(24.0%)으로 국내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대부분의 근거이론 연구가 Strauss와 Corbin(1998, 2008)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과(77편, 91.1%)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유형화에 대한 이론도출은 10편(12.7%), 상황모형 4편(5.1%)으로 주로 패러다임 모형과 과정분석을 중심으로 이론 도출이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화나 사회적 차원의 거시적 설명은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미연구는 생성이론(emergent theory)을 제시하는 경우가 패러다임 모형(7편, 13.0%)이나 과정분석(13편, 24.1%)보다 많은 25편(46.3%)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미연구에서 Strauss & Corbin(1998, 2008)을 적용한 연구가

24편(44.4%), Charmaz, Rennie, 기타의 경우가 30편(55.6%)이라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패러다임 모형은 범주간의 관련성을 통해 현상과 조건, 대처양식, 결과를 포함하여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으로(Strauss & Corbin, 1998), Corbin & Strauss(2008, 2014)에서는 Charmaz의 구성주의 관점을 더 많이 반영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축패러다임 모델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다각적인 이론도출 및 기술방식을 통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전형적 적용에서 나아가 보다 창의적인 적용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근거이론 연구의 발전을 도모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근거이론이 개인의 경험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미시적, 거시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이론도출을 통해 근거이론 방법의 고유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학문적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분야 주요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근거이론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는 상담분야의 학위논문 및 보다 광범위한 학술자료를 포함하여 상담분야 근거이론 연구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근거이론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이 활용되고 있는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근거이론 연구동향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및 북미 상담분야의 근거이론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미 지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북미 지역 이외 지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를 포함하여 국내와 국외 근거이론 연구의 동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북미 상담분야의 근거이론 연구 동향을 제시함으로써 근거이론 연구의 방향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국내 및 북미 연구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통해 향후 국내 상담분야 근거이론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 표시된 논문은 본 연구의 분석자료임.
- *강유미, 신혜중 (201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4), 1393-1410.
- *고문정 (2015). 대학생의 비구조화 집단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6(4), 131-156.
- *고유선, 김태호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정체감 발달과정분석: 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4), 1339-1352.
- *구승례, 차명호 (2007). 가족상담: 회복중인 알코올의존 부부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분노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8(4), 1693-1710.
- 권경인, 양정연 (2013).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00~2012년). 상담학연구, 14(6), 3871-3893.
- *김경미, 김정희 (2011). 감사 경험에 관한 질

- 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39-759.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명애, 송정아 (2012). 상담을 경험한 아내의 대상관계에 근거한 부부갈등 변화과정 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13(6), 2681-2696.
- 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상담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02년~2011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729-752.
- 김영신, 박지은 (2011). 국내 음악치료 질적연구 동향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2), 1-30.
- *김요완 (2009). 근거이론을 적용한 이혼소송 과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59-583.
- *김윤희, 김진숙 (2014).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장애수용 과정. 상담학연구, 15(5), 1911-1935.
- 김은경, 김현주 (2017).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질적연구 동향: 국내 및 북미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2003-2015). 상담학연구, 18(2), 245-270.
- 김은정 (2017). 한국의 사회학 연구영역에서의 근거이론의 활용 방법과 전개, 그리고 향후 방향의 모색. 『한국사회학』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1(3), 37-70.
- 김인숙 (2011). 근거이론의 분기: Glaser와 Strauss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351-380.
- *김종우, 주수산나 (2018). 학교상담현장에서 인식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실제: 근거이론 접근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2), 107-124.
- 김지연 (2018). 국내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13년~2017년). 질적탐구, 4(2), 131-168.
- 김진숙, 이근무, 이혁구 (2011). 도박자 배우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사회복지연구, 42(1), 83-115.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현주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탐색. 비교교육연구, 26(5), 1-29.
- 김현주, 박재우, 심혜원, 주영아, 한영주 (2016). 한국 상담원로의 상담자로서의 삶. 서울: 학지사.
- *김현주, 유성경 (2008). 미국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9(2), 615-644.
- *김효정, 김봉환 (2011). 청년구직자들이 진로 결정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사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85-810.
- *남주연, 김진숙 (2014). 미혼여성에서 기혼여성으로의 이행에서 심리적 변화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59-788.
- 박경애, 백지은 (2017).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2012~2016) 분석 및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게재논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893-913.
- *박경은 (2017). 결혼적령기 남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경험. 상담학연구, 18(4), 409-430.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 분석 -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상담학연구, 13(2), 953-977.
-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과정. 서울: 학지사.
- *박승민, 김창대 (2005). 온라인게임 과다사용 청소년의 게임행동 조절과정과 개입요인. 상담학연구, 6(4), 1281-1305.
- 박정애, 이명우 (2018). 해체가족 구성원의 외상 후 성장 경험 분석. 재활심리연구, 25(1), 49-83.
- 박종원, 정혜숙 (2018). 자살위험노인 동년배상담가의 상담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0(2), 197-222.
- *박철욱, 안현의. (2016). 복합외상경험자의 자기의 회복과정. 상담학연구, 17(6), 63-85.
- *박태영, 조성희 (2005). 근거이론을 활용한 폭식장애 여대생의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 상담학연구, 6(1), 93-107.
- *방기연 (2006). 상담심리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233-254.
- *백은정, 유영권 (2004).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25-842.
- *변복수, 박승민 (2015).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721-748.
- 보건복지부자살예방센터(2017). 2017년도 자살 예방백서. 중앙자살예방센터. http://www.spckorea.or.kr/new/sub03/sub06_view.php?Kind=1340&Code=weblibrary&No=11061&page=1&SearchCategory=%C0%FC%C3%BC에서검색
- *서영석, 안하얀, 이채리, 박지수, 김보흠, 성유니스. (2016).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의 극복 과정 유형. 상담학연구, 17(1), 39-64.
- *서영석, 안하얀, 이채리, 최정운 (2015). 집단따돌림 외상 경험 및 극복 과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85-719.
- 손은정 (2010). 수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1-21.
- *오현수, 김진숙 (2012). 내담자의 상담요청 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781-805.
- *유근준, 김봉환 (2010). 대상관계의 변화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33-551.
- 윤호균 (2007). 온마음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05-522.
- 유혜령 (1997). 현대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아동 이해의 문제. 아동교육, 6(1), 96-110.
- *윤혜정, 권경인 (2011). 휴대전화 중독 청소년들의 특성 및 중독과정 촉진요인. 상담학연구, 12(2), 577-598.
- *이남주 권정아 (2017) - 국내거주 고려인 부부들의 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 상담학연구, 18(3), 311-331.
- 이동성, 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 *이명윤, 김병석 (2015). 상담일반: 알코올중독자의 장기간 단주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6(5), 23-37.
- *이문희, 이수림 (2015). 부부, 가족상담: 부정적 양육의 대물림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 중년여성의 양육경험을 중심으로 -. *상담학연구*, 16(5), 417-438.
- *이영미, 한재희 (2013). 모가 지각한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극복경험. *상담학연구*, 14(2), 1401-1422.
- *이윤희, 김지연 (2016). 가족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애도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7(4), 225-250.
- *이은진, 유성경 (2011). 장애대학생의 대학생 활을 통한 변화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083-1115.
- 이진희, 윤호균 (2001). 통찰명상 중의 경험내용에 대한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05-120.
- 이현진, 김명찬 (2018). 상담학 질적 연구 동향 분석(2012년~2017년): 상담 관련 국내 학술지 및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게재논문 비교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3), 73-96.
- *이혜은, 김동일 (2018).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 - 우연한 관계 경험을 중심으로 -. *상담학연구*, 19(6), 175-201.
- *임선영 (2013). 외상적 관계상실로부터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745-772.
- *임은미, 박승민, 장선숙 (2007). 상담일반: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조절과정 분석 - 과다 사용 변화집단과 지속집단의 체험을 중심으로 -. *상담학연구*, 8(3), 819-838.
- *장창민 (2005). 상담 일반: 마약류 사용 재소자의 관계구조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 *상담학연구*, 6(4), 1129-1150.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학의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논문(창간년도~2009). *상담학연구*, 11(2), 507-524.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지승희, 오혜영 (2013). 상담 분야의 CQR 연구 동향 - 2001~2010년 상담관련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 *상담학연구*, 14(4), 2327-2349.
- *채후남, 이지연 (2015). 한국 중년여성의 혼외 관계 경험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6(4), 547-573.
- 천성문 (2016). 한국적 상담사례 연구: 상담 대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1(1), 19-37.
- 최귀순 (2005).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방법론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14(1), 82-90.
- *최은우, 최선남 (2014). 미술창작에서 야기된 퇴행의 자기치유적 특성. *상담학연구*, 15(5), 2085-2105.
- 최이선 (2016). 심리치료에서 상호주관성 개념의 의미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569-581.
- *최지영 (2004).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불안과 가족경계에 관한 목회상담 연구. *상담학연구*, 5(4), 1311-1330.
- *최지영 (2009).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 관계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가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3), 1697-1725.
- *하 정 (2008).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 결정 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31-454.
- *하 정, 유성경 (2007). 진로상담: 학업우수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 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8(4), 1521-1540.
- *한영주, 권경인, 김창대, 유성경 (2012). 낮은 성과를 보인 상담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3(1), 71-97.
- *한정애, 천성문, 김은정 (2008).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과정 분석. *상담학연구*, 9(4), 1607-1624.
- 행정안전부 (20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MSMSTR_000000000014&nntId=73857.
- *홍지영, 하 정 (2009). 상담일반: 집단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로서의 경험. *상담학연구*, 10(3), 1427-1451.
- *Arczynski, A. V., & Morrow, S. L. (2017). The complexities of power in feminist multicultural psychotherapy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2), 192-205.
- *Arm, J. R., Horne, S. G., & Levitt, H. M. (2009). Negotiating connection to GLBT experience: Family members' experience of anti-GLBT movements and polic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1), 82-96.
- *Beckstead, A. L., & Morrow, S. L. (2004). Mormon clients' experiences of conversion therapy: The need for a new treatment approa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5), 651-690.
- Belar, C. D., & Perry, N. W. (1992). The national conference on scientist-practitioner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7(1), 71-75.
- Benoliel, Q. J. (1996). Grounded theory and nursing knowledg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3), 406-428.
- Birks, M., & Mills, J. (2015).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2nd ed.). Los Angeles, CA: Sage
- Buboltz, W. C., Miller, M., & Williams, D. J. (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3-1998).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496-503.
- Buboltz, W. C., Deemer, E., & Hoffmann, R., (2010).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Buboltz, Miler, & Williams (1999) 11 Years La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3), 368-375.
- *Budge, S. L., Chin, M. Y., & Minero, L. P. (2017). Trans individuals' facilitative coping: An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proces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1), 12-25.
- *Budge, S. L., Tebbe, E. N., & Howard, K. A. S. (2010). The work experiences of transgender individuals: Negotiating the transi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4), 377-393.
- *Budge, S. L., Katz-Wise, S. L., Tebbe, E. N., Howard, K. A. S., Schneider, C. L., & Rodriguez, A. (2013). Transgender emotional and coping processes: Facilitative and avoidant coping throughout gender transitioning. *The*

- Counseling Psychologist*, 41(4), 601-647.
- *Budge, S. L., Orovecz, J. J., & Thai, J. L. (2015). Trans men's positive emotions: The interaction of gender identity and emotion label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3(3), 404-434.
- *Budge, S. L., Chin, M. Y., & Minero, L. P. (2017). Trans individuals' facilitative coping: An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proces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1), 12-25.
- *Burnes, T. R., Wood, J. M., Inman, J. L., & Welikson, G. A. (2013). An investigation of process variables in feminist group clinical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1), 86-109.
- *Capodilupo, C. M., & Kim, S. (2014). Gender and race matter: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intersections in Black women's body ima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1), 37-49.
- *Chan, A. W., Yeh, C. J., & Krumboltz, J. D. (2015). Mentoring ethnic minority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 592-607.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Chassman, L., Kottler, J., & Madison, J. (2010). An exploration of counselor experiences of adolescents with sexual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8, 269-276.
- Chui, H. T., Jackson, K. L., Liu, J., & Hill, C. E. (2012). Annotated bibliography of studies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In C. E. Hill(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213-26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orbin, J., &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Corbin, J., & Strauss, A. (201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J. W. (2015).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Thousand Oaks, CA: Sage.
- *Daly, K. D., & Mallinckrodt, B. (2009). Experienced therapists' approach to psychotherapy for adults with attachment avoidance or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4), 549-563.
- *Elder, W. B., Morrow, S. L., & Brooks, G. R. (2015). Sexual self-schemas of bisexual men: A qualitative investig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3(7), 970-1007.
- *Elder, W. B., Morrow, S. L., & Brooks, G. R. (2015). Sexual self-schemas of gay men: A qualitative investig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3(7), 942-969.
- *Ellis, L. M., & Chen, E. C. (2013). Negotiating identity development among undocumented immigrant college students: A grounded theory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2), 251-264.

- Eysenck, H. J. (1952). The effects of psychotherapy: An evaluatio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6*, 319-324.
- Fassinger, R. E. (2005). Paradigms, praxis, problems, and promise: Grounded theory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56-166.
- *Flores, M. J., Watson, L. B., Allen, L. R., Ford, M., Serpe, C. R., Choo, P. Y., & Farrell, M. (2018). Transgender people of color's experiences of sexual objectification: Locating sexual objectification within a matrix of do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3), 308-323.
- *Flynn, S. V., & Black, L. L. (2011). An emergent theory of altruism and self-interes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9*, 459-469.
- *Flynn, S. V., Olson, S. D., & Yellig, A. D. (2014). American Indian acculturation: Tribal lands to predominately white postsecondary setting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2*, 280-293.
- *Fouad, N. A., Helledy, K. I., & Metz, A. J. (2003). Leadership in division 17: Lessons from the presidential addr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6), 763-788.
- *Gibson, D. M., Dollahide, C. T., Moss, J. M., Aras, Y., & Mitchell, T. (2018). Examining leadership with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presidents: A grounded theory of leadership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6*, 361-371.
- *Haberstroh, S., Parr, G., Bradley, L., Morgan-Fleming, B., & Gee, R. (2008). Facilitating online counseling: Perspectives from counselors in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6*, 460-470.
- *Han, Y. J., & O'Brien, K. M. (2014). Critical secret disclosure in psychotherapy with Korean cli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2*(4), 524-551.
- *Hanks, B. B., & Hill, N. R. (2015). Relational dynamics within the context of deafness: A case study of the supervision triad.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3*, 299-311.
- Hill, C. E. (2009). *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 (3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oover, S. M., & Morrow, S. L. (2016). A qualitative study of feminist multicultural trainees' social justice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4*, 306-318.
- *Hoshmand, L. T. (2005). Narratology, cultural psychology, and counseling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78-186.
- Hoyt, W. T., & Bhati, K. S. (2007). Principles and practic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201-210.
- *Inman, A. G., Tummala-Narra, P., Kaduvettoor-Davidson, A., Alvarez, A. N., & Yeh, C. J. (2015). Perceptions of race-based discrimination among first-generation Asian Indians in the

- United Stat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3(2), 217-247.
- *Katz-Wise, S. L., Budge, S. L., Orovecz, J. J., Nguyen, B., Nava-Coulter, B., & Thomson, K. (2017). Imagining the future: Perspectives among youth and caregivers in the trans youth family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1), 26-40.
- Kim, D. M., Wampold, B. E., & Bolt, D. M. (2006). Therapist effects in psychotherapy: A random-effects modeling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treat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data. *Psychotherapy Research*, 16, 162-172.
- Lambert, M. J., & Bergin, A. E. (1994). The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In A. E. Bergin & S. L. Garfiel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pp. 143-189). New York: Wiley.
- Latz, A. M., & Mulvihill, T. M. (2017). *Photovoice research in education and beyond*. New York: NY, Routledge.
- *Levitt, H., Butler, M., & Hill, T. (2006). What clients find helpful in psychotherapy: Developing principles for facilitating moment-to-moment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14-324.
- *Levitt, H., Ovrebo, E., Anderson-Cleveland, M. B., Leone, C., Jeong, J. Y., Arm, J. R., Bonin, B. P., Cicala, J., Coleman, R., Laurie, A., Vardaman, J. M., & Horne, S. G. (2009). Balancing dangers: GLBT experience in a time of anti-GLBT legis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1), 67-81.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Los Angeles, CA: Sage
- *Noonan, B. M., Gallor, S. M., Hensler-McGinnis, N. F., Fassinger, R. E., Wang, S., & Goodman, J. (2004). Challenge and success: A qualitative study of the career development of highly achieving women with physical and sensory disabil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68-80.
- *O'Shaughnessy, T., & Burnes, T. R. (2016). The career adjustment experiences of women early career psychologis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4(6) 786-814.
- *Petersen, S. (2000). Multicultural perspective on middle-class women's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63-71.
- Pillemer, K. (2011). *30 Lessons for living: Tried and true advice from the wisest Americans*. New York, NY: Avery.
- *Pope-Davis, D. B., Toporek, R. L., Ortega-Villalobos, L., Ligiéro, D. P., Brittan-Powell, C. S., Liu, W. M., Bashshur, M. R., Codrington, J. N., & Liang, C. T. H. (2002). Client perspective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A qualitative examin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3), 355-393.
- Schreiber, R. S., & Stern, P. N. (2001).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New York, NY: Springer.
- *Shen-Miller, D. S., Forrest, L., & Burt, M. (2012). Contextual influences on faculty diversity conceptualizations when working with trainee competence problem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0(8), 1181-1219.

- Smith, M. L., & Glass, G. V. (1977). Meta-analysis of psychotherapy outcome studies. *American Psychologist*, 32, 752-760.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 *Timlin-Scalera, R. B., Ponterotto, J. G., Blumberg, F. C., & Jackson, M. A. (2003). A grounded theory study of help-seeking behaviors among white 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39-350.
- *Todd, N. R., & Abrams, E. M. (2011). White dialectics: A new framework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with white stu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9(3), 353-395.
- *Vogel, D. L., Epting, F., & Wester, S. R. (2003). Counselors' perceptions of female and male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 131-141.
- Wampold, B. E. (2000). Outcome in individu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mpirical evidence addressing two fundamental questions.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711-739). New York: Wiley.
- *Wertz, F. J. (2005).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for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67-177.
- *Whisenhunt, J. L., Chang, C. Y., Flowes, L. R., Brack, G. L., O'Hara, C., & Raines, T. C. (2014). Working with clients who self-injure: A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2, 387-397.
- *Yeh, C. J., Kim, A. B., Pituc, S. T., & Atkins, M. (2008). Poverty, loss, and resilience: The story of Chinese immigrant you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1), 34-48.

원 고 접 수 일 : 2019. 08. 28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1. 11
게 재 결 정 일 : 2019. 12. 20

Trend Analysis of Grounded Theory in the Counseling Field: Korean and U.S. Academic Journals (2000-2018)

Yang, Hong-Sik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 Master

Kim, Hyun Joo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rends in grounded theory research in the field of counseling, published in Korean and U.S. journals from 2000 - 2018. The authors analyzed 133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use of grounded theory in Korean and U.S. studies has been on an upward trend since 2013, with KJC (59 articles, 74%) and JCP (23 articles, 42.6%) at the forefront.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daptation’ was the most common research subject, with ‘counselor’ the most common participant, and ‘in-depth interview’ the most common data collection method. Korean studies primarily used the approach of Strauss & Corbin, while U.S. research used diverse approaches. Finally, Korean articles primarily used a paradigm model, while U.S. studies used emergent theory.

Key words : *counseling, grounded theory, content analysis, Korean and U.S. counseling research*